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25)
(佛言)愛欲之人 猶如執炬 逆風而行
(불언)애욕지인 유여집거 역풍이행
必有燒手之患
필유소수지환

'애욕에 빠진 사람은 마치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 반드시 손을 데일 화가 있다.'

(26)
天神獻玉女於佛 欲壞佛意
천신헌옥녀어불 욕괴불의
佛言 革囊衆穢 爾來何爲去 吾不用
불언 혁낭중예 이래하위거 오불용
天神愈敬因問道意 佛爲解說 卽得須
천신유경인문도의 불위해설 즉득수
陀洹果
다원과

천신이 옥녀를 부처님께 보내 부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죽 주머니 속에 온갖 오물뿐인데 너는 무엇하러 왔느냐? 물러가라. 내겐 쓸모가 없노라!' 천신은 더욱 존경하게 되어 도에 대해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심에 천신은 곧 수다원과를 얻었다.

(28)
(佛言)愼勿信汝意 汝意不可信
(불언)신물신여의 여의불가신
愼勿與色會 色會卽禍生
신물여색회 색회즉화생
得阿羅漢已 乃可信汝意
득아라한이 내가신여의

'그대의 뜻을 믿으려 하지말라. 그대의 뜻은 가히 믿을게 못된다.
삼가 색과 어울리려 하지말라. 색을 가까이 하면 화가 닥친다.
이미 아라한이 되었다면 그대의 뜻을 믿어도 좋다.'

(29)
(佛言)愼勿親女色 亦莫共言語
(불언)신물시여색 역막공언어
若與語者 正心思念 我爲沙門 處于濁世
약여어자 정심사념 아위사문 처우탁세
當如蓮花 不爲泥汙
당여연화 불위니한
想其老者如母 長者如姊 少者如妹 稚
상기노자여모 장자여자 소자여매 치
者如子
자여자
生度脫心 息滅惡念
생도탈심 식멸악념

'그대의 뜻은 가히 믿을게 못된다
아라한이 되었다면 믿어도 좋다'

(27)
(佛言)夫爲道者 猶木在水 尋流而行
(불언)부위도자 유목재수 심류이행
不觸兩岸
불촉양안
不爲人取 不爲鬼神所遮 不爲洄流所
불위인취 불위귀신소차 불위회류소
住 亦不腐敗
주 역불부패
吾保此木決定入海
오보차목결정입해
學道之人 不爲情欲所惑 不爲衆邪所
학도지인 불위정욕소혹 불위중사소
嬈 精進無爲
요 정진무위
吾保此人必得道矣
오보차인필득도의

'무릇 도라는 것은 마치 물에 뜬 나무와 같다. 그 나무가 흐름을 따라서 기슭에 닿지 않고, 사람들이 건져내지 않고, 귀신들이 가로 막지 않고, 소용돌이에 머물지 않고, 썩지 않으면 반드시 바다에 이름을 보장할 수 있듯이, 도를 배우는 이가 정욕에 유혹되지 않고 사악한 일에 빠져들지 않고 정진하되 함이 없는 길로 나아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라고 내가 보장할 수 있다.'

(30)
(佛言)夫爲道者 如彼乾草 火來須避
(불언)부위도자 여피건초 화래수피
道人見欲 必當遠之
도인견욕 필당원지

'무릇 도라는 것은 저 마른 풀과 같다. 모름지기 불을 피해야 하듯이 도인도 제 마음자리에서 욕심이 이는것을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향 가까이 하면 향내나듯

벽응스님 〈태고종 승정〉

내 나이 6살 때였어요. 장마로 인해 한해 농사가 수포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님 친구분이 인근 미타암에서 부목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정의 어려움을 듣더니 화장사 부목으로 가게 됐는데 대신 미타암 부목을 살지 않겠느냐며 아버님께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 길로 아버님은 어린 나를 데리고 미타암 부목생활을 시작하셨지요.

이 때부터 불연(佛緣)을 맺기 시작한 것이지요. 절에서 살면서 매일 아침 저녁 예불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장엄해 조석으로 예불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암송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도 지금까지도 생생한 것을 보면 내가 출가의 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며칠 미타암에서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왔는데도 스님들의 예불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구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버릇이 생겼고 친구들과 놀다가도 예불시간만 되면 화장사 법당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저희 집 인근에 있는 화장사는 유난히 재(齋)가 많은 절이었습니다. 한번 재를 지내면 며칠씩 이어졌는데 그 때마다 친구들과 밤을 새워 구경했습니다. 재 지낼 때의 상주권공(常住勸供)은 그 당시 귀동냥해서 배운 것입니다. 화장사에서 재를 자주 지내다보니 우리들의 놀이도 자연스럽게 재를 지내는 모습을 흉내내는 놀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돌로 부처님을 모시고 나는 냄비뚜껑을 들고 바라춤을 추는 소꿉장난을 하곤 했지요.

나의 예만 보아도 어릴 때부터 불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불교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불교와 친근하게 맞닥뜨릴 수 있도록 주위에서 신경써 주어야 합니다. 불교말에 훈습(熏習)이라고 있지요. 예를들어 향과 가까이 하면 향내가 스며들어 향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처럼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훈습에 의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은연중에 불교적인 훈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올바른 훈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까운 곳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기독교인이 되기 쉽고, 사찰이 가까운 곳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불자가 되기 쉽지요.

출가한 후에도 스님들에게 범패를 배울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 귀동냥한 것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범패가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3살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사 운월스님이 모든 장례준비를 해 주셔서 원만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님 장례가 끝난뒤 어머님이 '저에게는 아들이 3형제가 있으니 막내 아들을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운월스님께 부탁한 것이 출가의 계기가 됐습니다. 출가를 하게된 결정적인 동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사에 갑자기 재가 들어왔어요. 큰 재든 작은 재든 일단 재가 들어오면 법구를 쳐야 하는데 마침 법구를 다룰 줄 아는 스님이 그때 한명도 없었어요. 20여명의 스님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른 사찰로 재를 지내러 갔기 때문이지요. 내가 냄비뚜껑을 들고 바라춤을 추는 것을 멀리서 보아왔던 화장사 스님들은 나를 절로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법구를 치게 했습니다. 어머님이 출가를 권했던 터였고 나도 범패에 대한 동경심이 각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연이 되어 자연스럽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법구치는 것을 보고 은사스님께서는 "야 이놈 제법인데. 잘 가르치면 제법 하겠어"라며 범패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마침 화장사에는 범패승으로 널리 알려진 청하스님과 보성스님이 있어 범패를 배우게 됐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지화(紙花)를 잘 만드는 분이었기에 틈틈히 지화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항상 "범패는 소리를 잘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부처님을 공양하는 신앙심이 바탕이 돼야 하고 모든 작법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일러 주셨어요. 소리만 잘 하는 것은 남을 흉내내는 앵무새나 다름없다는 것이지요. 소리만 잘 하는 것은 진정한 범승(梵僧)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심으로 수행해 범패의 삼매경에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즉 불교의식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패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선방 수좌들이 든 화두처럼 생각하고 그 속에 모든 것은 담아 토해낼 줄 알아야 옳은 범승이 된다고 강조하셨지요. 이를 위해서는 범패를 배울 때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삿된 망상을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발심이 지극해야 큰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는 것처럼 범패도 배울 때의 마음과 자세가 올곧아야 완벽한 범패 시연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나도 후학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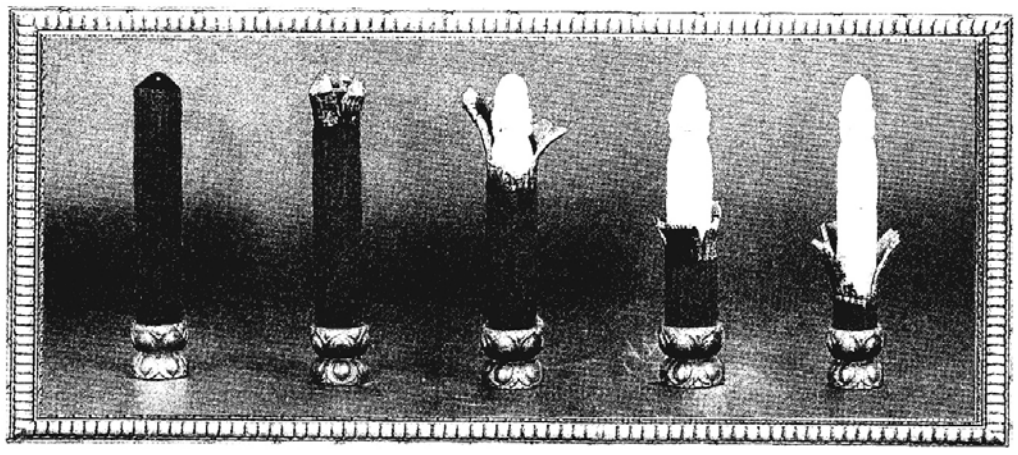
당시 범패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보성스님 문하에서 공부하게 됐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구전(口傳)으로, 귀동냥으로 배웠던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수자를 찾아다니며 배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성스님은 범패 72가지를 전부 시연할 수 있는 세분의 스님중 한

약력
- 1909년 경기 파주 生
- 1925년 화장사에서 운월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27년 화장사 강원 수료
- 1928년 화장사 수선안거 이래 5하안거 성만
- 1929년 화장사에서 청하스님으로부터 범음범패 및 호적 상주권공 수학
- 1930년 화장사에서 보성스님으로부터 범음범패 수학
-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지정
- 1975년 태고종 종사법계 품수
- 1998년 태고종 승정 추대
- 現 김포 문수사에 주석

범패는 믿음을 극대화하는 의식
재물 탐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몸으로 신업 · 입으로 음성공양을

■ 의장등록 : 98-19350
■ 상표등록 : 98-28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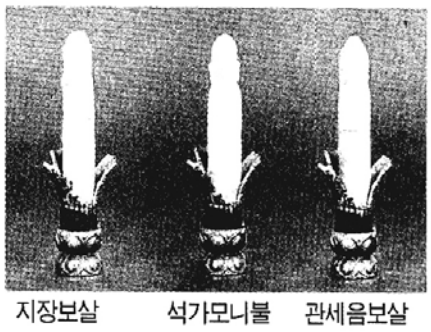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향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전부 타고 난 다음에는 향 연기도 소멸되고 타고난 재의 모습은 예술형상으로 남으며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고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등 법회와 각종 기념행사,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Tel : 051) 466-3731~2 Fax : 051) 466-3733

전국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 · 경기/대전 · 충청남,북/ 광주 · 전라남,북/
부산 · 경남/대구 · 경북/강릉 · 강원/제주

卍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卍